



광양 백운산 휴양림

추석연휴 '복적복적'

4천2백여 명 방문 숲체험 등 다양한 체험 즐겨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이 광양시민은 물론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찾아온 1박 이상 이용객이 2천8백여 명에 이르며, 아영객과 입장객을 합치면 4천2백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백운산자

연휴림 이용객들을 위해 숲체험 교실을 연장 운영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와 굴렁쇠, 부호,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준비해 부모들에게는 잊혀진 유년시절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영상체험관에서는 메미복 결이와 한지로 제기를 만들어 보

고, 우리의 전통놀이 중 하나인 고누놀이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서울에서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찾은 최모씨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 수도권에 있었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다음 연휴에도 시간이 된다면 꼭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금군 휴양림관리팀장은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처음으로 체험행사를 준비한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에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삼나무와 편백, 테다 소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가 계곡과 함께 펼쳐져 있고 숲속 사이로 숲속의 집, 종합 숙박동, 산림문화 휴양관 아영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이 갖 갖추어져 있어 자연속의 힐링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지원

영유아 발달검사 통해 조기치료·맞춤형 교육 기회제공

(제)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에서는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유아기 발달 장애 징후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정밀검사를 통한 각 개인의 수준에 맞는 치료방법을 안내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원활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자 추진된다.

30명을 선정하는 이번 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관심 있는 시민은 2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재단사무처인 시 교육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room6660@korea.kr), 팩스(061-797-2592)로 접수하면 된다.

재단에서는 해당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초과 가정 중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나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아동의 증상을 청취한 후 하위 가정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재단 사무처에서 발달장애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지정 병원에 방문해 제출하고 상

담과 검진을 받으면 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 원까지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재단 관계자는 "영유아기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진단에 대한 부모의 신뢰성 부족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아이가 맞춤형 조기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등은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공·사립유치원 관리자 인권준중 연수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최근 순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67명을 대상으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인권준중 및 교권보호 활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관리자 인권준중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강사는 광주시교육청 이나연 변호사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이해, 교권보호 기구와 방안, 아동학대 예방 활동 안내, 인권준중 및 교권침해 사례'를 현

장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연수에서 윤종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육공동체간 소통과 공감 노력을 통해 유아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가 존경받는 인권친화적인 유치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교권침해 예방의 지름길이며 유아·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제일유치원 문성숙 원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므로 따뜻한 눈길, 다정한 말투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유치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연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순천교육지원청은 인권준중 및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인권준중교육 활동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성황'

화순군이 관내 지역 중소농들에게 행복한 추석명절나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달 29일 군청 건강드림센터 주차장에서 운영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성황리에 열렸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직거래 장터는 12개 지역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농특산물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해 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은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등 이날 기관단체 임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인근 주민 등 300여명이 직거래장터를 찾아 성황을 이뤘다.

김경호 화순 부군수도 격려차 직거래 장터를 찾아 참여한 생산농가를 격려하며 농산물도 구입했다. 또 김재복 남이 판매 수익금 71만원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추석 명절을 더욱 훈훈하게 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열린 이번 직거래 장터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인근 기관단체와 주민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열기 짝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 및 뉴딜사업 참여 업무협약



순천시는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남제·전전·장전)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순천시, 희망 건물주 대표 주민협의회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위해 순천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간 상생협약 희망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을 공개모집하고, 2단계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와 함께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총 40명의 건물주의 신청을 이끌어 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조종훈 순천시장을 비롯해 3개동 희망건물주 대표, 2단계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주는 임대료 상승억제와 상가임차인에 대한 임대기간을 5년간 보장하고 주민협의체는 부동산시장 과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전개한다.

또, 순천시는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 체결 후에는 주민협의체,

희망 건물주 대표, 순천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선 예방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과 대한민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모델 구축을 위해 부동산시장 과열방지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도 완료했다.

도시재생과 조태훈 과장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산인회, 청년단체, 교육기관, 언론사, 예술단체, 상권기관 등 총 30여개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열기를 확산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고령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나주시 보건소는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층 시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난 9월 26일부터 관내 위탁 의료기관(47개소) 및 보건(지)소(15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 65세 이상은 이달 1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신분

증을 지참하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나주시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시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중 주민 접종과 더불어, 시 자체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유료접종(인당 7,500원)이 시행될 방침이다.

취약계층은 관련 신분증(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유료접종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만 60개월에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에 해당한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